

# 충청북도 지역특산물의 시기별 변화와 지역적 분포 특성

최보미\* · 강창숙\*\*

## The Periodical Change and Region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Regional Speciality Products in Chungcheongbuk-do

Choi, Bo-mi\* · Kang, Chang-Sook\*\*

**요약**: 지역특산물은 고 지리지의 주요 항목으로 구성되어 올 정도로 오래전부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 충청북도 12개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소개된 지역특산물과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의 지리지에 수록된 토산물을 대상으로, 충청북도 지역특산물의 시기별 변화와 지역적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의 지역특산물은 크게 농작물, 임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 4개 유형의 특산물과 가공식품, 공예품, 화장품 등 3개 유형의 특산품으로 구분되었다. 선정된 지역특산물 중에서 농작물이 모든 지역에서 가장 다양하게 분포하고 가공식품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선 전기와 후기의 지리지에 수록된 토산물의 유형은 농작물, 수산물, 임산물, 축산물, 공예품, 광산물의 6개 유형이고, 대추, 인삼, 꿀의 3개 품목이 널리 재배되었다. 셋째, 일제강점기의 지리지에 수록된 각 지역의 토산물은 수산물을 제외한 5개 유형이다. 조선시대에 비해 수록된 품목의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했지만, 공예품의 품목 수는 단양과 괴산군을 중심으로 매우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지역특산물 중에서 역사지리적 전통성을 지닌 지역특산물은 18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지역특산물, 지역특산품, 지역적 특성, 전통성, 고 지리지, 충청북도.

**Abstract**: Regional specialty products should be representative of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for a long time, this was not done for geographical research. This study examines current the regional specialty products on 12 web-site of the cities/counties in 2013 and the products registered on the Tosan(土産) category from old Jiriji(古地理誌) in Chungcheongbuk-do. Furthermore, the study analyzed periodical change and region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regional specialty products.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urrent the regional specialty products types are 4 products(crops, marine products, forest products, livestock products) and 3 manufactures(processed food, handicraft, cosmetic products). Among the regional specialty products, various crops and processed food were distributed in all the regions. Second, the traditional products types are 5 products(crops, marine products, forest products, livestock products, mineral products) and 1 manufactures(handicraft) that registered on the old Jiriji in the Joseon Dynasty period. The jujube, ginseng and honey were cultivated in the most regions. Third, the traditional products types are 4 products except for marine products and 1 manufactures(handicraft) that registered on the old Jiriji in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Its total item numbers of the regional specialty products are greatly decreased, but items of handicraft relatively increased in the Danyang and Goesan regions. Finally, regional analyzing of current local items shows that there are only a few regional specialty products(18 items) that have historical traditionality.

**Key Words**: regional specialty products, regional specialty manufactures, regional characteristics, traditionality, old Jiriji, Chungcheongbuk-do.

### 1. 서론

최근 우리나라 각 지방정부는 지역특산물, 지역 축제, 지역관광을 통해 지역문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각 지방정부의 노력은 개별적인 접근보다는 지역축제를 통한 지

역특산물 판매와 지역관광을 연계하는 등의 통합적인 접근으로 적극 실천되고 있다. 지역특산물, 지역축제, 지역관광은 공통적으로 각 지역의 자연 환경과 인문환경을 바탕으로 한 지리적 특성, 즉 지역성을 바탕으로 한 지리적 현상들이다. 무엇보다 지역특산물은 고 지리지의 주요 항목으로 구성

\*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전공

\*\* 충북대학교 지리교육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gaia2004@cbnu.ac.kr)

되어 올 정도로 오래전부터 지역성을 뚜렷하게 반영해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각 지역의 지역특산물은 지역생산물로서의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지역이미지 홍보의 적극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지역특산물에 대한 선행연구는 지역특산물의 가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심형수; 1999, 이승훈; 2006, 이종선; 2012, 안미란; 2013, 이윤희; 2013 등)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지역특산물의 현황 및 특성에 관련된 연구(송희순, 2010; 최윤숙, 2010; 이재완, 2010 등)와 지역특산물과 지역축제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김선아; 2006, 고재윤; 2007 등)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특산물에 대한 선행연구 대부분이 지역특산물의 상품화나 경제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지리적 연구는 극히 일부(원경렬, 1982; 이기봉, 2003; 유기진, 2012; 이윤희, 2013)에서 고지리지에 표기된 경상도 지역의 토산물 분포나 생산적 품목에 대한 검토, 지리적 표시제 등록 품목의 고지리지 표기 여부, 지역농산물의 재배와 가공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 연구의 일부에서 지역특산물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을 뿐, 각 지역의 지역특산물에 대한 지리적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청북도 지역특산물을 대상으로 현재와 과거의 관점에서 시기별 변화와 지역적 분포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2013년 충청북도 12개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와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의 지리지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는 지역특산물에 대한 정보가 적극적으로 탑재되고 있으며, 제시되는 정보에 대한 책임성, 정확성, 객관성, 최신성, 충실성을 주요 평가기준으로 삼는다(김무관·장하용, 2001) 지역 정보 매체이다. 지역 정보의 보고인 지리지에는 지역의 토산물이 주요 서술 조항으로 수록되어 있어서,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편찬된 대표적인 지리지를 선정해 시기별 변화와 지역적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 2. 충청북도 지역특산물의 유형과 지역성

### 1) 충청북도 지역특산물의 현황과 지역성 재현의 양상

지역특산물은 말 그대로 ‘어떤 지역의 특별한 산물’을 가리키며, ‘특별한 산물’은 ‘어떤 지역의 특성 혹은 특정 지역의 지역성을 바탕으로 생산된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동안 관련 연구에서 이루어진 정의는 제각각이다.

지역특산물은 단순히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역사적 전통을 가진 상품(이병동 외, 1993)이나 품질에서 타지방의 산물보다 경쟁우위에 있는 상품(선정근, 1996)으로 보기도 하였지만, 특정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바탕으로 한 지역성과 역사적 전통성을 가진 생산물(오호탁, 1995; 심형수, 1999; 이승훈, 2006; 이종선, 2012; 강명욱, 2013)로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정의를 바탕으로 지역특산물을 인식함에 있어서, 특산물(特産物)과 특산품(特産品)을 구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지역특산물’과 ‘지역특산품’이 혼용되고 있다. 조선 후기까지 지역특산물은 지리지에 주로 토산물이란 불리는 농림수산물에 대부분이듯, 지역특산물을 ‘특정 지역의 기후조건, 환경에 의해 형성된 자연조건에 따라 재배와 수렵의 방식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산물’로, 특산품은 ‘지역의 특산물을 전통적이고 특별한 가공과정을 통해 처리한 가공품’으로 정의할 수 있다(강명욱, 2013).

하지만 ‘영동의 건조오징어’와 같이 특산품이 그 지역의 특산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특산품을 ‘지역의 특산물을 가공한 것’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 즉, 특산물이 기후와 토양 등 자연환경의 영향이 큰 1차적 생산물이라면, 특산품은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 기술, 의식주, 역사 등 인문환경의 영향이 큰 2차 가공품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지역 환경과 경제적인 인식의 변화에 따라 1차 생산물인 특산물보다는 2차 가공품인 특산품이 증가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특산물을 ‘특정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바탕으로 한 지역성과 역사적 전통성을 가진 생산물과 생산품’으로 정의한다.

표 1. 충청북도 지역특산물 현황

지역 (개수)	명 칭	지역특산물	지역축제 (개최주기, 시기)
괴산군 (7)	우수 농·특산물	고추, 찰옥수수, 절임배추, 씨감자, 인삼, 사과, 한우	괴산고추축제 (매년, 9월)
단양군 (14)	단고을 특산물	신선농산물(마늘, 고추, 사과, 수박, 감자, 더덕, 잡곡), 가공식품(마늘고추장, 된장, 갈은마늘, 청국장), 약초(약초), 특산물(자석버루, 도자기)	쏘가리투어 낙시대회(매년, 4월)
보은군 (54)	보은 농·특산물	황토대추, 황토사과, 황토배, 황토쌀, 황토한우	보은대추축제 (매년, 10월)
		농산물 과일류(꽃감, 복숭아, 포도, 감, 대추), 과채류(돼지감자, 방울토마토, 오이, 배추), 양념류(고추, 마늘)	
		황토작물 축산물(벌꿀, 계란, 녹용엑기스) 인삼 버섯류(노루궁뎅이버섯 외 5종의 버섯과 손바닥선인장음료), 채소류(더덕, 산채), 기타(동·서양란)	
가공품 주류/즙류/차류(대추차, 칩차, 송로주, 사과즙, 배즙, 칩즙, 오미자엑기스), 공예품(염주, 복공예, 약세사리), 보은황토식품류(된장, 참기름, 들기름, 고추씨기름, 김치, 땅콩, 산채순대, 대추한과, 장아찌, 고추장, 청국장), 엑기스(사슴녹용엑기스, 자라엑기스, 흑염소증탕), 미네랄류(미네랄), 보은황토대추제품류(대추비타민)			
영동군 (24)	내 고향 특산물	포도, 감, 마늘, 배, 사과, 매론, 수박, 복숭아, 인삼, 쌀, 건오징어, 표고버섯, 호두, 밤, 고로쇠 수액, 꽃감, 벌꿀, 감식초, 포도주, 포도즙, 포도잼, 포도초, 쌀강정, 된장	영동꽃감축제 (매년, 12월) 영동포도축제 (매년, 8월) 대한민국와인축제 (매년, 9월)
옥천군 (12)	지역특산물	포도, 복숭아, 부추, 마, 인삼, 묘목, 꽃감, 포도 원액, 옹기, 도자기, 국악기, 제기	옥천묘목축제 (매년, 3월) 향수옥천농특산물축제 (매년, 7월)
음성군 (5)	음성장터	고추, 수박, 복숭아, 인삼, 쌀	음성청결고추축제 (매년, 9월) 음성인삼축제 (매년, 10월)
제천시 (4)	대표농특산물 소개	사과, 복숭아, 고추, 약초(황기, 당귀)	제천약초건강축제 (매년, 10월)
증평군 (30)	명품 농·특산물	인삼, 쌀, 잡곡, 사과, 복숭아, 배, 딸기, 토마토, 마, 도라지, 고구마, 감자, 단호박, 돈육, 홍삼절편, 고려홍삼진액, 홍삼정플러스, 홍삼정과, 배추인삼김치, 인삼백김치, 된장, 고추장, 두부, 대명한차, 울무차, 청국장, 홍삼청국장분말, 청국장환, 홍삼초콜렛, 인삼한과	증평인삼골축제 (매년, 10월) 홍삼포크인삼축제 (매년, 9월)
진천군 (22)	특산물정보	특화작물(쌀, 장미, 관상어, 수박), 과실류(거봉포도, 사과, 배), 채소류(고추, 오이, 호박), 특용작물(사슴, 작두콩, 천마, 우렁이), 가공특산물(덕산천년주, 호박초정, 호박엣, 진천숯), 공예품(자석버루, 목공예, 도자기, 숯공예)	생거진천문화축제 (매년, 10월)
청원군 (24)	청원생명브 랜드	쌀, 애호박, 배, 딸기, 절임배추, 포도, 수박, 사과, 고추, 토마토, 고구마, 서리태, 인삼, 복숭아, 브로콜리,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민들레, 북분자, 토종꿀, 벌꿀, 계란, 된장, 마늘	청원생명축제 (매년, 9월)
청주시 (24)	특산물	식량작물(쌀, 고구마), 채소및과채류(대파, 쪽파, 부추, 열무, 배추, 시금치, 토마토, 딸기), 화훼(토종꽃, 분재), 과수(포도, 배, 복숭아, 사과), 특용작물(표고버섯), 가공식품(떡, 고추장, 사슴엑기스, 메주, 된장, 간장, 시래기)	-

충청북도 지역특산물의 시기별 변화와 지역적 분포 특성

충주시 (47)	지역 특산물품	공예품	칠보공예(칠보귀걸이, 목걸이, 팔찌), 악세사리(귀걸이, 목걸이, 팔찌), 숯대벽걸이장식, 천연염색제품(스카프, 쿠션, 베게, 먼티, 침구류), 참숯공예(분체, 베게, 방석, 목초액), 도자기(머그잔 및 생활도자기류), 사과아로마랩프	.친등산고구마축제 (매년, 9월) .수안보·살미대학찰옥수수축제(매년, 7월) .충주사과축제 (매년, 11월) .충주 밤축제 (매년, 9월) .충주복숭아축제 (매년, 8월)
		화장품류	창포제품(삼푸, 바디클렌저), 온정수, 마데카솔 제품(비누, 샴푸)	
		가공식품	건강음료, 고춧가루(탐마을, 매편), 들기름, 현미, 구이김, 사과냉면, 사과쫄면, 만두, 홍삼초콜렛, 녹차초콜렛, 사과비타민, 김치통조림, 연잎차, 사과소면, 사과칼국수, 사과수제비, 녹용제품, 액젓	
		장류	청국장, 청국장분말(솔잎, 사과, 상황버섯), 사과고추장, 사과된장	
		면류	사과국수, 도토리·송화소면	
		한과	초코한과, 사과한과, 조청, 젤리	
		농산물	쌀, 마, 잡곡, 참기름, 들기름, 냉동찰옥수수, 김치	
		주류	민속주, 사과주, 친등산 막달주	

2013년 1월 현재 충청북도 12개 시·군 지방자치단체(이하에서는 지자체나 지역으로도 기술) 홈페이지에 게재된 지역특산물의 현황을 지역별 명칭, 유형이나 품목, 관련 지역축제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sup>1)</sup>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과 마찬가지로 충주시를 제외한 각 지역도 지역특산물과 관련된 지역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지역축제 명칭에서는 해당 지역과 특징 농산물에 대한 표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특산물이 해당 지역의 지역성을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자체의 불분명한 인식은 ‘명칭’표기에서 가장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지역성을 가장 뚜렷하게 반영할 수 있는 지명이 명칭에 포함된 경우는 보은, 음성, 청원군의 세 지역뿐이다. 단양군의 ‘단고을특산품’은 지명을 이미지화하여 간접적으로 표기한 경우로 볼 수 있지만, 괴산군을 비롯한 8개 지역은 ‘내 고향 특산품’, ‘지역특산품’ 등 지역을 알 수 없는 일반적인 명칭으로 자기 지역의 특산물을 표기하고 있다.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지역특산물을 소개하거나 표기하는 방식도 제 각각이다. 괴산, 보은, 증평군과 충주시의 4개 지역은 ‘특산물’로 표기하고 있으며, 단양, 영동군과 충주시의 3개 지역은 ‘특산품’으로 표기하고 있다. 청원군은 ‘청원생명브랜드’라는 공동 상표로 표기하고 있으며, 음성군과 진천군은 ‘음성장터’와 ‘특산물정보’ 등 온라인 쇼핑몰의 표기 방식으로 지역특산물을 표기하고 있다.

지역특산물에 대한 인식이나 표기의 혼란은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지역특산물의 분류나 종류

를 소개하는 방식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각 지자체의 지역특산물 소개 방식은 크게 나열형과 분류형의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괴산, 영동, 옥천, 음성, 제천, 증평, 청원군의 7개 지역은 지역특산물의 유형이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나열하고 있는 나열형에 해당한다. 단양, 보은, 진천군과 충주, 충주시의 5개 지역은 지역특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분류형에 속한다.

단양군은 14개의 지역특산물을 농산물, 가공식품, 약초, 특산품의 개별적인 분류기준으로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다. 보은군은 대추, 사과, 배, 쌀, 한우의 5가지 농축산물을 별도로 소개하고, 나머지 지역특산물을 ‘황토작물’이라는 지역의 토양 특성을 반영한 대분류 하에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가공품으로 구분하여 과일류에서 보은 황토대추 제품류에 이르는 15개의 하위 종류로 구분하는 이원화된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진천군은 22개의 지역특산물을 특화작물, 과실류, 채소류, 특용작물, 가공특산물, 공예품의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쌀, 장미, 관상어, 수박의 4개 상품을 ‘특화작물’로 명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충주시는 24개의 상품을 식량작물, 채소 및 과채류, 화훼, 과수, 특용작물, 가공식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충주시는 47개의 상품을 공예품, 화장품류, 가공식품, 장류, 면류, 한과, 농산물, 주류로 구분하여 8가지 유형으로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사과소면과 같은 가공식품은 물론 사과고추장과 같은 장류나 사과국수와 같은 면류 등의 원료가

되는 사과는 농산물에서도 소개되지 않는 것이 특이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충청북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소개되고 있는 지역특산물의 종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의 정의에 의거하여 크게 농작물, 임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 4가지 유형의 특산물과 가공식품, 공예품, 화장품 등 3가지 유형의 특산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2)</sup>.

충청북도 12개 시·군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소개되고 있는 지역특산물을 살펴본 결과, 지역특산물의 ‘명칭’표기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명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유형 분류나 품목 제시와 홈페이지에서 소개하는 방식에서도 지역특산물에 대한 혼란이나 오류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충청북도 각 지역의 홈페이지에서 소개되고 있는 지역특산물은 지역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성을 반영하기보다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을 여과 없이 홍보하고 있어 각 지역의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2) 충청북도 지역특산물의 유형과 지역적 분포**

충청북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지역특산물의 종류를 농작물, 임산물, 수산물,

축산물의 특산물과 가공식품, 공예품의 6가지로 유형화하여 지역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먼저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보은군이 수산물을 제외한 5가지 유형의 지역특산물이 분포하고 전체 품목의 수(43개)가 가장 많아서 충청북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8.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어서 충주시(30개), 청원군(24개)과 청주시(24개), 증평군(23개)과 영동군(23개)순으로 분포하며 제천시와 증평군은 농작물과 임산물의 2가지 유형만 분포하고 전체 품목의 수도 가장 적은 4개(1.7%)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진천군은 6가지 유형의 지역특산물이 모두 분포하는 반면, 음성군의 경우는 농작물 1가지에만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는 지자체별로 생산되는 지역특산물의 유형이나 품목의 절대적 차이보다는 지역특산물 및 그에 포함되는 품목에 대한 상대적인 인식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유형별 분포의 특징을 살펴보면, 농작물은 12개 시·군의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는 반면에 수산물은 진천군과 영동군의 2개 지역에서 분포한다. 이는 충청북도가 산간 내륙에 위치하였다는 지리적 특징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공식품은 단양군 등 9개 지역에서 분포하지만 생

표 2. 충청북도 지역특산물의 유형과 지역적 분포(2013년)

지역 유형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청원군	청주시	충주시	계 (%)
농작물	6	6	14	10	4	5	3	11	10	16	15	3	103 (44.6)
수산물	0	0	0	1	0	0	0	0	2	0	0	0	3 (1.3)
임산물	0	2	10	5	3	0	1	2	2	4	2	1	32 (13.9)
축산물	1	0	3	1	0	0	0	1	1	3	0	0	10 (4.3)
가공식품	0	4	13	6	1	0	0	9	3	1	7	19	63 (27.3)
공예품	0	2	3	0	4	0	0	0	4	0	0	7	20 (8.7)
계 (%)	7 (3.0)	14 (6.1)	43 (18.6)	23 (10.0)	12 (5.2)	5 (2.2)	4 (1.7)	23 (10.0)	22 (9.5)	24 (10.4)	24 (10.4)	30 (13.0)	231 (100)

\* 표에서 숫자는 지역특산물 유형별 품목의 수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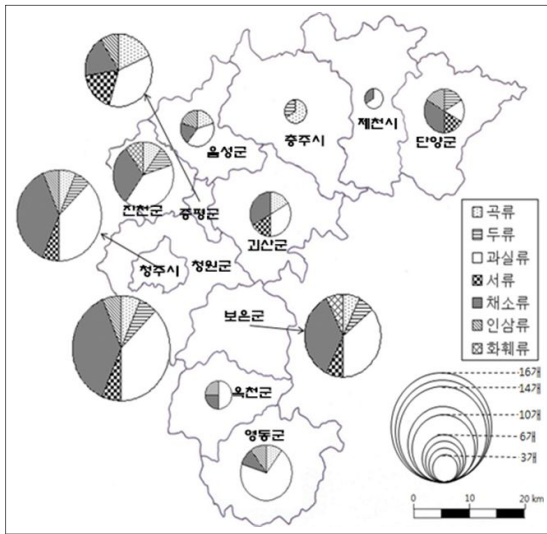


그림 1. 충청북도 지역특산 농작물의 지역별, 품목별 분포

산 품목의 수는 지역별 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유형이다. 이는 가공식품 개발 기술의 차이 및 가공식품을 특산물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충청북도 각 지역의 지역특산물 중에서는 농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44.6%) 종류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표 2, 그림 1), 모든 지역에서 지역특산물로 생산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품목의 농작물을 생산하는 지역은 청원군(16개)이며 그 다음이 청주시(15개), 보은군(14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원군의 경우는 ‘청원생명브랜드’라는 상표를 등록·출원하여 친환경 농업을 추구하고 있어 농작물의 개발 및 농가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많은 품목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충청북도의 도청 소재지로 가장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청주시에서 가장 다양한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다. 이에 반해 충청북도 두 번째 규모의 도시인 충주시의 경우 농작물은 3가지 품목만 나타나고 있으며, 사과와 감은 충청북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며 충주시를 대표하는 농작물임에도 지역특산물에 포함되지 않았다.

충청북도 지역특산물로 소개된 농작물의 분포를 나타낸 <그림 1>을 살펴보면, 청주시를 중심으로 한 청원군, 보은군, 증평군, 진천군 등의 중부 지

역에서 농작물의 품목별 수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과실류와 채소류가 곡류, 두류, 서류와 같은 식량 작물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농작물 중에서 가장 많은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은 과실류이고, 그중에서도 사과는 9개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충청북도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지역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내륙에 위치하여 연교차와 일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와 산지가 많은 지형적 조건으로 배수가 잘되는 구릉지에서 사과재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과실류인 복숭아와 곡류인 쌀도 8개 지역에서 널리 재배되고 있다.

수산물의 경우는 지역특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으며 영동군에서 1개, 진천군에서 2개 품목이 생산되고 있다. 영동군의 건조오징어는 다른 지역에서 잡힌 생물 오징어를 영동군에서 건조시켜 생산하는 일종의 수산가공품이다. 진천군의 관상어는 진천군의 대표적인 특화작물로 ‘아롱이’라는 별칭이 있으며 진천군 광혜원면을 중심으로 생산되는 황토우렁이는 맥반석, 황토, 참숯을 넣어 키워 맛이 뛰어난 것을 강조하는 민물 수산물이다.

산지가 많은 자연환경으로 충청북도의 임산물 품목은 22개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지역별로 가장 다양한 임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은 속리산 지역에 위치한 보은군에서 10개로 가장 많은 품목이 생산되고 있다.<sup>3)</sup> 임산물 중에서 꽃감이나 버섯류가 다른 품목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생산되긴 하나 재배 지역이 넓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꽃감은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등 비교적 기온이 높고 일조량이 풍부하여 감이 많이 생산되는 충청북도 남부 3군에 집중 분포한다.

지역특산물로 생산되는 축산물은 한우, 돼지고기 등 6개 품목이다. 각 품목별로 생산되는 지역도 한정되어 있으며, 단양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청주시는 지역특산물로 생산되고 있는 축산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군과 청원군이 3개 품목을 생산하고 있어 충청북도 내에서는 비교적 다양하게 생산하고는 있으나 축산업이 특화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품목별로 보면 진천군에서 사슴, 괴산군과 보은군에서 한우, 증평군에서 돼지고기를 지역특산물로 생산하고 있다. 증평군의 경우는 인삼

과 돼지고기를 ‘사미랑홍삼포크’라는 브랜드로 결합하여 지역특산물로 적극 홍보하고 있다.

가공식품의 경우는 매우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충주시, 보은군에서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충주시의 가공식품은 19개 품목으로 가장 많은 종류의 가공식품이 생산되고 있다.<sup>4)</sup> 특히 충주시의 대표적인 지역특산물은 사과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두 번째로 많은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지역은 보은군(13개 품목)으로 이들 지역의 공통적인 특징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농축산물을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많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공식품 품목은 ‘된장’으로 7개 시·군에서 생산되고 있다. 된장의 원료는 콩으로 충청북도는 경상북도에 이어 전국 2위의 콩 생산량<sup>5)</sup>을 보이고 있어 좋은 품질의 원료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원액도 5개 지역에서 지역특산물로 선정되었는데 원액의 경우에는 생산과정이 단순하고 원료의 제한이 적기 때문에 각 지역의 농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다양한 종류가 생산되고 있다. 된장과 원액은 다른 품목에 비해 생산기술과 생산과정이 보편화되어 많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공식품이다.

충청북도에서 가장 다양한 공예품을 생산하는 지역은 충주시로 7개 품목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특산물의 품목들이 주로 농축산물 중심인 반면에 충주시는 주로 가공식품과 공예품 위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도자기가 4개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 충청편의 「토산(土産)」 조항에 도기소(陶器所)가 위치했던 지역으로 괴산군, 회인현, 영동현, 옥천군, 제천현, 청풍군, 청안현, 진천현, 청주목, 충주목이 수록되어 있다. ‘모두 하품(下品)’으로 그 품질은 좋지 않았으나’ 조선시대부터 충청북도 지역에 도기소가 널리 분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충청북도 지역특산물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모든 지역에서 농작물이 다양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공식품이 그 뒤를 이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농작물을 제외하고 수산물에서 공예품에 이르는 5가지 유형별 품목의 지역적 분포나 비중은 시·군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3. 충청북도 지역특산물의 역사지리적 전통성

조선시대 이전에 편찬된 주요 지리지로는 『삼국유사(三國遺事)』, 『삼국사기(三國史記)』와 『고려사(高麗史)』 「지리지」가 있다. 이 지리지들은 역사서의 부록으로 포함된 것으로 지리지의 내용이 주로 행정구역과 지명의 변천이나 고증에 치중하고 있어 지역의 생산품을 파악하는데 적절하지 못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 통치 자료 파악을 목적으로 독자적인 지리지인 편찬된 조선시대 이후의 지리지 해당 조항(條)을 대상으로 각 지역의 생산품을 분석하였다(표 3).

충청북도 토산물의 유형과 지역적 분포를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일제강점기의 세 시기로 구분하여 조선 전기에는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이하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조선 후기에는 『여지도서(輿地圖書)』, 『대동지지(大東地志)』, 『충청북도 각 군읍지(忠淸北道 各郡邑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일제강점기는 『조선지리지자료(朝鮮地誌資料)』와 『조선의 물산(朝鮮의物産)』을 대상으로 각 지리지의 「토산」 조항 등에 수록된 품목들을 현재 충청북도 지역특산물과 비교, 분석하여 역사지리적 전통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 1) 시기별 지리지의 생산물 관련 조항과 토산물의 의미

조선 전기 세종대의 대표적인 지리지인 『세종실록지리지』는 「호구(戶口)」, 「전결(田結)」, 「군정(軍丁)」, 「토의(土宜)」, 「토공(土貢)」 등 12가지 조항에 걸쳐 경제, 군사, 행정적인 측면을 상세히 기록한 지리지이다(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엮음, 2011; 이기봉, 2003). 성종대 지리지를 대표하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조선 전기 지리지의 집성편으로, 이후 조선 지리지의 규범이 되어 조선 후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엮음, 2011). 이는 인물, 예속(禮俗), 시문(詩文) 등에 치중한 문화적 성격이 강한 지리지로서 『세종실록지리지』에 비해 경제 관련 조항이 매우 축소되었으나, 「토산」 조항에 지역 생산품이 기록되어 있다.

조선 후기, 즉 18세기 전국 각 지역 읍지의 중

표 3. 시기별 지리지와 분석 조항

시 기	지리지	분석 조항
조선 전기	『세종실록지리지』 (1454년(단종 2))	「토의(土宜)」, 「토공(土貢)」, 「약재(藥材)」, 「토산(土産)」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년, 중종 25년 신증)	「토산(土産)」
조선 후기	『여지도서』 (1765년, 영조 41년)	「물산(物産)」, 「진공(進貢)」
	『대동지지』 (1866년, 고종 3년까지 후보)	「토산(土産)」
	『충청북도 각군읍지』 (1898년 전후)	주로 「토산(土産)」이라 구분하고, 지역에 따라 「물산(物産)」, 「생산(生産)」이라 칭함.
일제 강점기	『조선지리지자료』 (1910년대 초반)	주로 「토산명(土産名)」이라 구분하고 지역에 따라 「토산물(土産物)」, 「토산물명(土産物名)」, 「토산(土産)」이라 칭함.
	『조선의 물산』 (1927년)	「물산(物産)」

합적 성격을 대표하는 『여지도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항목에 사회·경제적인 항목들을 추가 수록하고 있다(전중환, 2012). 『여지도서』는 각 고을에서 작성한 읍지를 각 도의 감영을 통해 수거하여 합책한 것으로, 「물산」 조항도 각 고을에서 올려 보낸 것을 그대로 전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여지도서』의 「물산」 조항이 각 고을의 토산물을 더 잘 반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알려주는 것이다(이기봉, 2003). 또한 당시 해당 고을에서 생산되지 않는 토산물도 상당수 수록되어 있지만, 해당 품목 아래에 “지금은 나지 않는다.”는 뜻의 ‘今無’를 별도로 표기하여 당시에 생산되었던 토산물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조선 전기 전국 지리지 편찬과 조선 후기 읍지 편찬의 맥락을 계승하고 있는 『대동지지』는 19세기 조선 각 지역의 모습을 재현하고 복원할 수 있는 풍부한 자료집이다(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엮음, 2011). 『대동지지』의 경제 관련 조항으로는 「토산」 조항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다만 「제인」과 「장시」를 작은 글씨로 보충하여 기록하였다(이기봉, 2003). 책의 내용을 통해 전국의 군·현별 인구, 호구, 전답, 군보의 통계수치를 파악할 수 있고, 토산품을 통해 전국의 자원분포를 파악할 수 있어 조선 후기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원경열, 1991).

『충청북도 각군읍지』는 구한말 충청도가 남북으로 분리된 1898년을 전후한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충주군에서 문의군에 이르는 18개 군·읍의 읍지류(邑誌類)를 수집하여 필사한 지리지이다(충북향토사연구협의회, 1997). 충주, 옥천, 진천, 괴산, 제천, 회인, 청안, 영동, 황간, 연풍, 음성외의 경우에는 「토산」, 청주와 영춘은 「물산」, 청풍과 보은은 「생산」조항에 수록되어 있으나 단양, 문의, 청산은 관련 조항이 없어 기록이 제외되어 있다. 대부분 『여지도서』에 수록되어 있는 생산품과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수록 품목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도 있다.

일제강점기인 1911년 조선총독부에서 전국의 군·현을 대상으로 지명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정리한 『조선지리지자료』는 조사 항목에 해당하는 ‘종별(種別)’이 「산곡명(山谷名)」에서 「원·참명(院·站名)」에 이르는 21종이다. 대부분 「토산명」이라 기록하고 있으나 영동군 양남일소면, 진천군 방동면에서는 「토산」, 황간군 서면에서는 「토산물명」, 황간군 오곡면과 황간면 상촌리에서 「토산물」로 기록하고 있다. 『조선의 물산』은 1927년 조선총독부가 조선의 식민지 경영을 목적으로 조선 물산의 종류, 성질, 분포, 생산, 무역, 거래 등의 상황과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善生永助에게 위탁한 조사연구의 결과보고서이다(문화원형백과 한강 생활



문화, 2006). 각 지역 물산의 종류를 농산물, 임산물, 광산물, 공산물, 수산물 등으로 나누어 경지면적이거나 수확량과 무역량 등을 수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리지별로 편찬시기와 편찬자가 달라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분류한 항목의 명칭이 다양하지만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즉, 토산물을 의미하는 「토산」이 대표적인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지역 생산 품목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각 지역의 생산물이 각 도의 총론에는 「부세(賦稅)와 「토공」 조항에, 각 고을에는 「토의」, 「토공」, 「토산」 등의 조항에 수록되어 있다. 이 중 토공에는 약재가, 토산에는 자기소, 도기소, 철장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이기봉, 2003). 「토의」는 1425년(세종 7년)에 편찬된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에서 「토의경종(土宜耕種)」 조항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 토질에 가장 적합한 경종작물을 수록한 조항이다. 「토공」에 수록된 품목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해당 군현에서 생산시설을 마련하고 군 소속의 공노비나 군사들을 동원하여 물산을 생산하고 납부하는 ‘관비공물(官備貢物)’이란 점이다. 「토산」은 공물이 아닌 방식으로 수취되거나, 관비공물이 아닌 각 민호에서 부담하는 그 지역의 생산물 혹은 직접 수취하지 않더라도 국가의 소용에 대비하여 산지를 파악해 놓은 물산들이다. 金, 銀, 銅, 鐵, 珠, 玉, 鉛, 錫, 篠, 蕩, 藥材, 磁器, 陶器 등이 주로 해당되었는데 해당 군·현의 관비공물을 제외한 모든 물산이 토산의 기재대상인 것이다. 「약재」는 군·현에서 채취·상납하는 약재라고 볼 수 있다(소순규, 2010).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토산」 조항은 해당 지역의 모든 공물이 아닌, 특산물에 해당하는 것들만 기재한 것이다. 즉, 국가의 수취 제도에 따라 각 도와 군현에 수취되는 방식에 따라 복잡하게 구성되었던 『세종실록지리지』의 「물산」 조항이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각 지방의 특산물만을 국가의 수취 방식에 따라 구별되지 않고 한 조항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변화한 것이다(소순규, 2010).

『여지도서』의 「물산」 조항은 대동법으로 진상 물자를 감영·병영·수영에 책정하고 이들 감영·병영·수영이 다시 관할 고을에 책정하여 상납하게

할 때, 책정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 만든 토산물 자료라고 할 수 있다(서종태, 2006). 『대동지지』권 1의 총괄 부분의 「문목(門目)」 조항에서는 이 책의 각 항목이 왜 설정되었고 어떤 내용을 서술했는지를 써 놓고 있는데, 「토산」 조항에 포함되는 생산물들의 유형과 내용을 다음과 같이 더욱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토산 : 산에서는 金, 銀, 銅, 鐵, 玉石이 나고, 바다에서는 漁, 蟹, 貝, 螺, 蠶, 蠶, 塩이 난다. 八穀은 田野의 肥瘠에 따르고, 오과는 原陸의 토에서 난다. 綿, 麻, 桑, 苧, 松, 竹, 楮, 漆, 皮革, 藥品은 그 생산되는 바에 따라 邑에 간략하게 수록한다. …… 銀鐵, 藥材의 옛 생산지 중 오늘에는 생산되지 않는 곳은 제외시켰다.”<sup>6)</sup>

이와 같이 『대동지지』는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반에 각 군·현에서 직접 작성한 「물산」 조항을 종합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군·현에서 생산되었던 토산물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당시의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기봉, 2003). 고지리지의 각 조항에 수록된 생산 품목들은 각 지역에서 생산되었던 토산물을 편찬시기와 편찬자의 의도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종합하면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유형의 토산물과 토산품 즉, 여러 가지 지역특산물로 그 의미를 정리할 수 있다.

## 2)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충청북도 토산물의 유형과 지역적 분포

고지리지에 수록된 충청북도 토산물의 유형과 지역적 분포를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일제강점기의 세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조선 전기 충청북도 토산물의 유형과 지역적 분포

조선 전기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충청북도 대부분의 지역 특성은 ‘厥土墉風氣早寒(땅이 메마르고, 기후가 일찍 춥다)’로 기록되어 있다. 충청북도 지역은 내륙에 위치하여 산

표 4. 조선 전기 충청북도 토산물의 유형과 지역적 분포

유형 지역	농작물					수산물	임산물					축산물	공예품	광산물
	곡류	두류	유지류	채소류	인삼류		과실류	견과류	버섯류	약재류	기타			
괴산군 (괴산현, 연풍현)	오곡, 조, 기장, 메밀	콩팥	-	-	인삼	누치	대추, 모과	잣	영지버섯, 석이, 송이, 느타리	복신, 복령, 산골, 안식향, 모향, 지치, 무애뽕, 잇(홍화), 출, 마뿌리, 신감초	뽕나무, 산뽕나무, 가래나무	꿀, 밀, 잡곡, 여우가죽, 삼가죽, 족제비털, 곰털	칠, 종이	-
단양군 (단양군, 영춘현)	조, 메밀	콩팥	-	-	인삼	누치	대추	잣	영지버섯, 석이, 송이, 느타리	복령, 당귀, 복신, 대왕풀, 자단향, 복나무진, 모향, 곰의 쓸개, 산겨자, 신감초, 지치, 안식향, 산무애뽕, 오미자, 회양목, 신감채, 화양목, 영양각	뽕나무, 산뽕나무, 단나무, 가래나무, 잣나무	꿀, 밀, 범가죽, 삼가죽, 잡곡, 제비털, 돼지털, 삼팽이가죽, 곰털	칠, 삼, 먹	옥돌, 청석, 황산철(綠礬), 은석, 백옥, 증유석
보은군 (회양현, 보은현)	기장, 피, 조, 메밀, 보리, 오곡	콩팥	-	-	인삼	-	대추	호도, 잣	영지버섯, 석이, 송이, 느타리	백부자, 지치, 복령, 지황, 안식향, 연꽃술, 오가피, 백복령, 당귀, 수취나물, 복나무진, 신감초, 안식향, 옹담	뽕나무, 단나무, 배나무 <sup>7)</sup>	꿀, 밀, 족제비털, 루가죽, 팽이가죽, 영양	칠, 종이	석칠, 상수정석, 주칠, 수정석, 은돌
영동군 (영동현, 황간현)	조, 기장, 보리, 오곡	콩	-	-	인삼	-	대추, 모과	호도, 잣	영지버섯, 석이, 송이, 느타리	복령, 백화사, 복나무진, 백랍, 신감초, 지치, 오미자, 산영양뽕, 당귀, 산무애뽕, 안식향, 신감채, 목적	뽕나무, 배나무	꿀, 밀, 여우가죽, 삼가죽, 잡곡, 족제비털, 수달피, 삼팽이가죽	삼, 칠, 종이, 자리, 사기, 그릇	-
옥천군 (옥천군, 청산현)	오곡, 조, 보리	-	-	-	인삼	-	대추, 모과	호도, 잣	영지버섯, 석이, 느타리	복나무진, 복령, 당귀, 애기풀, 영양뽕, 모란뿌리껍질, 신감초, 지치, 사향, 안식향, 지황, 백복령, 겨우살이, 풀뿌리, 장군풀, 석위	뽕나무, 산뽕나무, 배나무	꿀, 밀, 여우가죽, 삼팽이가죽, 족제비털, 산달피가죽, 고슴도치가죽	칠, 종이	주칠, 황산철
음성군 (음성현)	오곡, 조	팥, 녹두	-	-	인삼	-	대추	-	영지버섯	잇, 백화사, 복신	단나무	꿀, 밀, 족제비털, 깃, 잘, 우가죽, 범가죽	칠, 종이	-
제천시 (제천현, 청풍현)	기장, 피, 벼, 조, 보리	콩팥	-	순채	인삼	-	대추	호도	영지버섯, 석이, 송이, 느타리	당귀, 복령, 복신, 담비쓸개, 자단향, 담쟁이, 대왕풀, 신감초, 잇, 지치, 산무애뽕, 안식향, 신감채, 영양각, 방풍	가래나무, 산뽕나무, 단나무	꿀, 밀, 돼지털, 곰털, 족제비털, 범가죽, 여우가죽, 삼팽이가죽, 삼가죽, 영양	칠, 종이, 명주실, 먹, 성냥	칠, 곱돌, 사칠, 주칠, 청도, 황산철
증평군 (청안현)	기장, 벼, 조, 보리, 메밀	콩	-	-	인삼	-	대추	-	-	목흑(木黑), 백출, 지치, 지황, 복령	뽕나무, 산뽕나무, 배나무	꿀, 밀, 족제비털	칠	백옥

진천군 (진천현)	오곡, 조	팥	참깨	-	인삼	-	대추	-	영지버섯	지치, 복신, 사향, 산 무에뽕	-	꿀, 밀, 잡 곡, 여우가 죽, 삼팽이 가죽, 표범 가죽, 족제 비털, 영양	칠	-
청원군 (문의현)	오곡, 조, 메밀	-	-	-	인삼	누치	대추	-	느타리	백출, 지치, 복령, 안 식향, 산무에뽕	-	꿀, 밀, 여 우가죽, 삼 팽이가죽, 족제비털, 잡곡	종이	-
청주시 (청주목)	오곡, 조	팥 녹두	참깨	-	인삼	-	은행 대추	-	영지버섯, 송이, 석이	백출, 마뿌리, 연밥, 백부자, 마름, 가시연 밥, 지치, 복령, 안식 향, 지황, 산무에뽕	뽕나무 산뽕나무 배나무	꿀, 밀, 족제 비털, 잡곡	칠, 종이, 사기 그릇, 오지 그릇	황산철, 주도, 청옥, 청옥석
충주시 (충주목)	오곡	팥	참깨	명아 주	인삼	쏘가 리	대추 모과	잣	영지버섯, 석이, 송이, 느타리	활석, 모란뿌리껍질, 신감초, 지치, 사향, 안식향	뽕나무	꿀, 밀, 수달, 돼지털, 족 제비털	칠, 종이, 석유 황	칠

지가 많고 연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가 나타나 당시에 중시하던 주곡작물보다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품목들과 산간지대에서 수렵과 채집으로 얻을 수 있는 품목들이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두 지리지에 기록된 토산물의 유형은 <표 4>와 같이 농작물, 수산물, 임산물, 축산물, 공예품, 광산물의 6가지 유형으로 광산물이 주요 토산물로 수록되어 있다. 충주목에서는 이들 유형이 모두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들을 살펴보면 임산물인 약재류가 가장 다양하고, 그다음으로 축산물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들은 모든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는 『세종실록지리지』가 다른 지리지와는 달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토의」, 「토공」, 「약재」, 「토산」 등으로 세분하여 자세하게 기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륙에 위치한 충청북도의 지리적 특성으로 식량작물을 재배하거나 수산물을 채취하기보다는 산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임산물과 축산물의 비중이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충청북도 대부분 지역에서 재배되었던 품목은 대추와 인삼, 꿀이다. 조선 전기에는 연풍현과 회인현을 제외하고 충청북도의 모든 지역에서 대추가 생산되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대추가

기후 및 토질에 대한 적응력이 좋아 충청북도의 척박하고 추운 환경에서도 잘 성장하여 넓은 지역에 분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종실록지리지』 영춘현에서는 ‘棗 - 最良(대추 - 가장 좋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어 영춘현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대추가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인삼의 경우에도 회인현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수록되어 있다. 조선시대 이전부터 우리나라 전역은 인삼의 자생지로 적합하였으므로 재배에도 큰 어려움이 없어 충청북도에서도 널리 재배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에도 괴산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증평군, 청원군 등 5개 군에서 지역특산물로 생산되고 있다. 또한 꿀은 특별한 가공 기술이 없이 손쉽게 자연에서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충청북도의 모든 지역에서 꿀과 꿀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밀(黃蠟)을 생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조선 후기 충청북도 토산물의 유형과 지역적 분포

조선 후기에 편찬된 지리지 『여지도서』<sup>8)</sup>, 『대동지지』, 『충청북도 각군읍지』에 수록된 각 지역의 토산물 품목 수는 <표 5>와 같이 조선 전기에 비해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조선 전기와 마찬가지로 농작물, 수산물, 임산물, 축산물, 공예품, 광산물의

표 5. 조선 후기 충청북도 토산물의 유형과 지역적 분포

지역	농작물		수산물	임산물					축산물	공예품	광산물
	유지류	인삼류		과실류	견과류	버섯류	약재류	기타			
괴산군 (괴산현, 연풍현)	-	-	누치, 쏘가리	대추	갓	송이, 석이	자초, 복령, 시호, 황련, 신감채	-	꿀	옷	-
단양군 (단양군, 영춘현)	-	인삼	누치, 쏘가리	대추	-	송이	당귀, 창출, 백출, 시호, 자초, 도라지, 황양목, 복령	-	꿀	옷	석종유
보은군 (회인현, 보은현)	-	인삼	-	감, 대추	갓	송이, 석이	자초, 복령, 지황, 안식향, 사삼, 도라지, 웅담, 택사	-	꿀, 영양	-	수철
영동군 (영동현, 황간현)	-	인삼	쏘가리, 잉어, 누치	감, 배	갓	송이, 석이	당귀, 오미자, 신감채, 자초, 복령, 목적, 안식향, 신감초, 백화사	목화	꿀	자기그릇	-
옥천군 (옥천군, 청산현)	참깨 들깨	인삼	쏘가리, 은어, 가물치	감, 대추	-	송이, 석이	자초, 사향, 안식향, 지황, 복령	목화	꿀	-	수철, 주토, 녹반
음성군 (음성현)	-	-	-	대추	-	-	-	-	-	-	-
제천시 (제천현, 청풍현)	순채	-	누치, 쏘가리, 자라	밤, 대추	-	송이, 석이	자초, 복령, 신감초, 방풍, 백화사, 안식향, 영양각, 산사	목화	꿀, 꿩, 영양	명주실	주토, 청토, 수철, 녹반
증평군 (청안현)	-	인삼	은어	대추	-	송이	지치, 지황, 복령, 시호, 도라지	-	꿀	-	백옥, 철
진천군 (진천현)	-	-	은어	-	-	-	자초	-	꿀	-	-
청원군 (문의현)	무	-	누치, 쏘가리, 계	감, 밤, 대추	-	-	-	-	-	도기	-
청주시 (청주목)	-	-	쏘가리, 은어	감, 대추	-	석이	안식향, 지황, 백화사, 복령, 자초	-	-	종이, 칠	주토, 청토, 칠, 자석
충주시 (충주목)	-	인삼	붕어, 쏘가리, 누치	대추, 멧대추(酸棗), 밤, 배, 살구, 복숭아, 자두, 앵두	-	송이, 석이	활석, 지치, 사향, 안식향, 황금, 도라지, 아가위	-	꿀, 수달	칠, 백면지, 석유황	-

6가지 유형이 수록되어 있지만, 특히 농작물에 속하는 곡류와 두류에 해당하는 품목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약재류를 비롯한 임산물과 축산물의 품목도 매우 감소하였다. 이는 조선 전기와 후기에 편찬된 지리지의 성격 및 사회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공납제가 폐지되고 대

동법이 실시되면서 토산물을 조달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당시의 변화된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된다(서종태, 2006).

또한 『대동지지』의 「토산」 조항은 18세기 후반기와 19세기 초반기의 각종 지지에 대한 비교·검토의 과정을 통해 종합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상대적으로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다만 관찬지리지가 아닌 사찬지리지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직접 조사에 의해 작성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참고한 지리지 자체에서 오는 오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이기봉, 2003).

『충청북도 각군읍지』의 경우에는 「토산」조항을 비교해 본 결과 『여지도서』와 많은 부분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풍현, 회인현, 음성현, 청안현<sup>9)</sup>, 진천현, 청주현은 기록이 완전히 일치하는 지역이며, 충주현의 경우 『여지도서』의 기록에서 수산물류(쏘가리, 누치)와 과실류(산조, 밤, 배, 살구, 복숭아, 자두, 앵두)를 제외하고 그대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 전기에 이어 후기에도 대추와 인삼, 꿀은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생산되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새롭게 등장한 품목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목화이며, 무(萊菔), 참깨와 들깨, 과실류에 해당하는 감, 배, 살구, 복숭아, 자두, 앵두 등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재배되어 왔던 품목이고 목화의 경우도 고려시대(1366년)에 전래되었으나 조선 후기부터 기록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부터 충북지역에서도 널리 재배되기 시작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조선 전기 지리지에 비해 수산물에서 누치, 쏘가리, 은어, 잉어, 붕어, 가물치 등의 민물어종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어종의 출현보다는 어망이나 어선과 같이 어류를 포획할 수 있는 다양한 장비 및 기술의 발달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3) 일제강점기 충청북도 토산물의 유형과 지역적 분포

일제강점기에 편찬된 지리지 『조선지리지』와 『조선의 물산』에 수록된 각 지역의 토산물은 <표 6>과 같이 농작물, 임산물, 축산물, 공예품, 광산물의 5가지 유형으로 수산물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수록된 품목의 수도 조선 후기에 비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고, 그중에서도 조선 시대 주요 토산물이었던 임산물의 약재류와 축산물이 현저하게 감소했다. 반면 조선 시대에 비해 공예품의 품목 수는 매우 증가하였으며, 특히 단양군과 연풍군에서 다양한 품목이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강점기의 두 지리지에 수록된 토산물은 단양에서 가장 많은 품목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공예품이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다. 조선시대의 가공품은 주로 칠, 종이, 그릇 등이 중심이었던 반면에 나막신, 초석, 초해, 미투리와 같이 일반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품목들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두 지리지에 수록된 품목 중 특징적인 것은 목화의 일종인 육지면(陸地綿)과 연초(煙草)이다. 육지면은 우리나라의 해안가 및 남부평야지역이 주요 재배였으나 일제의 면화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전역에서 계획적으로 재배되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목화, 아마, 피마자 등 주요 특용작물을 군수 작물로 지정하여 증산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전국의 각도에 재배 면적을 강제로 할당하여 재배토록 하였다(이봉호 외, 2001). 연초는 조선시대에도 널리 재배되었으나 중독성으로 사회적 문제가 커지자 기록에서 제외되었다가 일제강점기에 다시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선전기와 후기에 다양한 품목이 수록되었던 약재류에 대한 기록이 거의 사라졌는데 이는 일제강점기의 한의학 말살 정책으로(농촌진흥청, 2009) 인해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각 지역의 재배 품목이 주로 자연지리적 조건에 의하던 조선시대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일제의 식민지 정책과 본국의 원료 공급을 위한 품목들이 지역별로 강제 배당되고, 새로운 특용작물의 전래와 이윤추구를 위한 상품작물의 재배 등으로 생산 품목에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즉, 일제강점기에는 각 지역의 생산물이 자연 환경보다는 식민지 정책과 경제적 요인이라는 사회·경제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할 수 있다.

### 3) 충청북도 지역특산물의 역사지리적 전통성

2013년 현재 충청북도 각 지역의 홈페이지에 제시되고 있는 지역특산물 중에서 고지리지에 토산물로 수록된 것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괴산군의 인삼, 단양군의 자석버루, 보은군의 대추 등 6개, 영동군은 인삼 등 7개, 옥천군의 인삼, 음성군의

표 6. 일제강점기 토산물의 유형과 지역적 분포

유형 지역	농작물					임산물					축산물	공예품	광산물
	곡류	두류	유지류	채소류	인삼류	과실류	견과류	버섯류	약재류	기타			
괴산군 (연풍군)	-	-	-	-	-	-	-	송이	목통, 상수리열매, 갈분(葛粉)	산채	-	사고지(四古紙), 창호지, 흑용기, 연초(담배), 목탄(炭), 목재, 견, 도자기	-
단양군 (단양군)	-	콩	-	-	인삼	-	-	-	도라지, 마가목, 천궁, 창출, 시호, 작약, 상수리열매	고사리, 닥나무, 잠견(蠶繭), 목화	꿀, 노루, 산돼지	유기, 베, 백지(白紙), 나막신, 장지(壯紙), 송관, 토기, 초석(草席), 초혜(草鞋), 무명, 미투리(麻鞋), 담배, 종이	사금, 오토 (烏土), 흑연광, 철광
보은군 (회인군, 보은군)	-	-	-	-	-	대추	-	-	목통	육지면, 견(繭)	-	목탄, 완석, 연초	수철
영동군 (영동군, 황간군)	벼, 보리	콩, 팥	검은깨, 참깨, 들깨	무	인삼	밤, 감, 대추	-	-	갈지, 상수리열매	목화, 숯, 신탄, 육지면	-	종이, 마, 도기, 왕골돗자리, 사기그릇, 백지, 목화솜	금
옥천군 (옥천군, 청산군)	-	-	-	-	-	대추	-	-	-	육지면, 견	-	-	사금, 흑연
음성군 (음성군)	-	-	-	-	-	감	-	-	-	-	-	연초, 도자기	금
제천시 (제천군)	-	콩	-	-	-	-	-	-	-	닥나무, 견	-	종이, 연초	-
증평군 (청안군)	쌀	-	-	-	-	-	-	-	-	목화	-	연초	금
진천군 (진천군)	쌀, 보리	콩, 팥	-	-	-	-	-	-	-	숯	-	벼룻돌, 연초, 도자기	-
청원군 (문의군)	-	-	-	-	-	-	-	-	-	-	-	토기	사금
청주시 (청주군)	-	-	-	-	-	-	-	-	대황	버들고리, 육지면	-	연초, 도자기	청주, 탄산, 금
충주시 (충주군)	-	콩	-	-	-	-	-	-	지황	닥나무, 견	-	연초, 종이	철광, 중석

인삼과 쌀, 제천시의 당귀, 증평군의 인삼 등 4개, 진천군의 쌀과 작두콩, 청원군의 서리태 등 5개, 청주시의 배, 충주시의 쌀 등 32개 품목이다. 영동군이 7개 품목으로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다(표 7).

전체적으로 조선전기에서 일제강점기로 올수록 토산물 품목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조선전기의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괴산군의 인삼에서 충주시의 배에 이르는 25개 품목을 수록하고 있지만, 일제강점기의 『조선의 물산』에는 보은의 대추, 영동의 감, 진천의 쌀 등 3개 지역의 3개 품목만 수록되어 있다. 충청북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소개

하고 있는 지역특산물 중에서 고지리지에 수록된 품목은 그리 많지 않으며 시기별로 연속적으로 기록이 남아있는 품목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2책 이상의 고지리지에서 그 기록이 전해져 역사적 기록의 전통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지역특산물은 괴산군의 인삼(2책, 이하 '책' 생략), 단양군의 자석벼루(2), 보은군의 대추(6), 벌꿀(4), 더덕(3), 영동군의 인삼(4), 벌꿀(3), 감(2), 배(2), 쌀(2)<sup>10)</sup>이다. 옥천군은 인삼(4), 제천시는 당귀(4), 증평군은 인삼(3), 쌀(2), 도라지(2), 진천군은 쌀(2)과 콩(2), 청원군은 인삼(2)으로 전체

표 7. 충청북도 각 지자체의 지역특산물 중 고지리지에 수록된 품목

지역	지역 특산물	조선전기		조선후기			일제강점기		품목의 수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대동지지	읍지	조선지리지자료	조선의 물산	
괴산군	인삼	○	○						1
단양군	자석벼루	○	○						1
보은군	대추	○		○	○	○	○	○	6
	배	○							
	쌀	○							
	벌꿀	○	○	○		○			
	느타리버섯	○							
	더덕			○	○	○			
영동군	인삼	○	○			○	○		7
	벌꿀	○		○		○			
	감				○			○	
	배	○		○					
	쌀	○					○		
	호두	○							
	밤						○		
옥천군	인삼	○	○	○		○			1
음성군	인삼	○							2
	쌀	○							
제천시	당귀	○	○	○		○			1
증평군	인삼		○	○		○			4
	쌀	○					○		
	배	○							
	도라지			○		○			
진천군	쌀	○						○	2
	콩(작두)	○					○		
청원군	콩(서리태)	○							5
	인삼	○	○						
	느타리버섯	○							
	벌꿀	○							
청주시	배	○							1
충주시	쌀	○							1
품목의 수		25	8	9	3	9	6	3	-

18개 품목이며, 영동군이 5개 품목으로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다. 음성군, 청주시, 충주시의 3개 지역은 2책 이상에서 그 기록이 계속되는 지역특산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특산물 중에서 역사적 전통성이 가장 큰 품목은 보은군의 대추이다. 보은군의 대추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제외한 모든 지리지에 연속적

으로 기록이 남아있어 조선전기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쳐 오늘날까지 그 전통성이 꾸준히 이어져 오는 유일한 품목이라고 할 수 있다. 대추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좋아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대추에 관련된 기록은 찾아볼 수 있으나, 현재 충청북도 지역에서 지역특산물로 선정한 지역은 보은군이 유일하다.<sup>11)</sup>

보은군의 대추 외에 고지리지 3책~4책에서 그 기록이 전해져 역사적 전통성이 강한 품목으로는 보은군의 벌꿀과 더덕, 영동군의 인삼과 벌꿀, 옥천군의 인삼, 제천시의 당귀, 증평군의 인삼 등이 있다. 『여지도서』의 영동현과 황간현의 「진공」조항에서도 ‘淸蜜’과 ‘胡桃’를 바쳤다는 기록이 있어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 해 주고 있다. 옥천군의 경우 고지리지에 기록이 남아있는 품목은 인삼이 유일하다. 인삼은 충청북도는 물론 우리나라 전역에서 재배가 이루어지던 품목으로 고지리지에 많이 등장하는 품목이므로 옥천군만의 특징이라고 말하기에 무리가 있다. 그러나 인삼이 고지리지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옥천군의 인삼이 전통성을 가진 품목이라는 내용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당귀(當歸)는 고지리지에 다양한 명칭으로 기록되었는데, 주로 當歸, 辛甘草, 辛甘菜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지도서』 제천현의 「물산」 조항에는 당귀가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진공」 조항에서 ‘當歸’와 ‘黃芪’를 바쳤다는 기록이 있어 예로부터 약초의 품질을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다.<sup>12)</sup>

단양군의 자석벼루는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最良 號爲丹山烏玉(단양군의 먹이 가장 좋아서 단산오옥이라 한다.)”이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그 품질이 매우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와 일제강점기에는 그 기록이 보이지 않으나, 그 전통은 계승되어 현재 지역특산물로 생산되고 있다. 충주시는 현재 충청북도에서 사과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나, 고지리지에는 그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그 외 지역특산물들도 분석 대상 고지리지에는 그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청북도 각 시·군의 홈페이지에 소개된 지역특산물 중 고지리지에 기록이 남아 있어 역사적 전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괴산군의 인삼을 비롯한 32개 정도의 품목이다. 이들 중에서 적어도 2개 이상의 고지리지에 수록되어 있는 경우는 괴산군의 인삼, 단양군의 자석벼루, 보은군의 대추, 벌꿀, 더덕, 영동군의 인삼, 벌꿀, 감, 배, 쌀, 옥천군의 인삼, 제천시의 당귀, 증평군의 인삼, 쌀, 도라지, 진천군의 쌀과 작두콩, 청원군의 인삼 등 18개 품목이다. 이 중에서도 조선전기와 후기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세 시기 지리지에 연속적으로 기록이 남아있는 지역특산물은 보은군의 대추와 영동군의 인삼에 불과하다.

#### 4. 정리 및 결론

지역특산물은 고 지리지의 주요 항목으로 구성되어 올 정도로 오래전부터 각 지역의 지역성을 뚜렷하게 반영해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각 지역의 지역특산물은 생산물로서의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지역이미지 홍보의 적극적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3년 충청북도 12개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지역특산물과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의 고지리지에 수록된 토산물을 대상으로, 충청북도 지역특산물의 시기별 변화와 지역적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충청북도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는 지역특산물을 살펴본 결과, 해당 지역의 지역성을 가장 뚜렷하게 반영할 수 있는 지명이 지역특산물 명칭에 포함된 경우는 보은, 음성, 청원군의 세 지역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특산물에 대한 인식도 불분명하여 ‘특산물’이나 ‘특산품’으로 표기하거나 온라인 쇼핑몰 방식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을 의미 없이 단순 나열하거나 임의적으로 분류,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지역특산물을 ‘특정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바탕으로 한 지역성과 역사적 전통성을 가진 생산물과 생산품’으로 정의하고, 충청북도 각 지자체의 지역특산물을 크게 농작물, 임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 4가지 유형의 특산물과 가공식품, 공예품, 화장품 등 3가지 유형의 특산품으로 구분하였다. 충청북도 지역특산물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모든 지역에서 농작물이 다양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공식품이 그 뒤를 이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농작물을 제외하고 수산물에서 공예품에 이르는 5가지 유형별 품목의 지역적 분포나 비중은 시·군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선 전기의 고지리지에 기록된 토산물의 유형은 농작물, 수산물, 임산물, 축산물, 공예품, 광산물의 6가지 유형으로, 충주목에서는 이들 유형이 모두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산물인 약재류가 가장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축산물이 다양하고 이들은 모든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수록되어 있다. 조선 전기 충청북도 대부분 지역에서 널리 재배되었던 품목은 대추와 인삼, 꿀 등이다.

넷째, 조선 후기 고지리지에도 농작물에서 광산물에 이르는 6가지 유형이 수록되어 있지만 조선 전기에 비해 각 지역의 토산물이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농작물에 속하는 곡류와 두류에 해당하는 품목은 전혀 수록되지 않았으며, 약재류를 비롯한 임산물과 축산물의 품목도 매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 전기에 이어 후기에도 대추와 인삼, 꿀은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생산되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목화를 비롯하여 무, 참깨와 들깨, 과일류 등의 농작물과 수산물에서 새로운 품목들이 많이 나타났다.

다섯째, 일제강점기에 편찬된 고지리지에 수록된 각 지역의 토산물은 농작물, 임산물, 축산물, 공예품, 광산물의 5가지 유형으로 수산물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수록된 품목의 수도 조선 후기에 비해 전체적으로 감소했지만, 조선 시대 주요 토산물이었던 임산물의 약재류와 축산물도 현저하게 감소했다. 반면 공예품의 품목 수는 매우 증가하였으며, 특히 단양군과 연풍군에서 다양한 품목이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가 새로운 품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여섯째, 2013년 현재 충청북도 각 지역의 홈페이지에 제시되고 있는 지역특산물 중에서 고지리지에 토산물로 수록된 것은 인삼과 쌀 등 32개 품목이다. 이 중에서 2책 이상의 고지리지에서 그 기록이 전해져 역사지리적 전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지역특산물은 전체 18개 품목이며, 역사지리적 전통성이 가장 큰 품목은 보은군의 대추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 영동군이 5개 품목으로 가장 많고, 음성군, 청주시, 충주시의 3개 지역은 2책 이상에서 그 기록이 계속되는 지역 특산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 전기에서 일

제강점기까지 충청북도의 토산물은 시기별로 그 품목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고 2013년 현재의 지역특산물은 유형별 품목의 지역적 분포나 비중이 시·군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기별로 분석 대상 사료가 다르다는 근본적인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조선 후기의 대동법 시행과 더불어 상품경제의 발달 및 농업의 지역특화 등과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수탈 경제 상황 그리고 농업 중심의 전통 경제생활과는 확연히 다른 현대 경제체제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크다.

조선 전기 이후 충청북도 지역특산물은 시기별로 유형별 품목이 변화해 왔지만 그 대부분이 농작물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이 농산물인 지역특산물의 역사지리적 전통성을 고지리지에의 수록 여부를 근거로 분석하였지만, 우리나라 농작물은 품목별로 전래 시기나 재배법이 널리 보급된 시기가 다른 경우가 많고, 과일류나 채소류는 상품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고지리지에의 수록 여부로 역사지리적 전통성을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역사지리적 전통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충청북도 지역특산물의 대부분은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나 재배, 생산되는 일반적인 농작물들로 어떤 지역의 특별한 지리적 환경이나 지역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최근에는 과학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품종의 도입, 생산 및 가공기술의 발달 등으로 상품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지역특산물이 등장하는 등 사회경제적 변화와 같은 인문환경이 지역특산물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전통성뿐만 아니라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다양한 경쟁력을 갖추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특산물을 선정하고 육성하는 새로운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 주

- 1) 2013년 1월에 조사한 내용을 기준으로 8월에 변경이 있는 지자체는 일부 수정하였다. 홈페이지에서 지역특산물을 분류형으로 소개한 경우 그 기준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 2) 먼저 농작물(農作物, crop)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

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2조(농업의 범위)에서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규정에 의한다.

수산물(水産物, marine products)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과 ‘나. 수산물: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한다.

임산물(林産物, forest products)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임산물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 그 밖의 조경수(造景樹), 분재수(盆栽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라는 규정에 의한다.

축산물(畜産物, livestock products)은 「축산법」 제2조(정의)에서 “축산물이란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젖·알·꿀과 이들의 가공품·원피(원모피(原毛皮)를 포함한다)·원모, 그밖에 가축의 생산물로서 농림수산물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에 의한다.

가공식품(加工食品, processed food)은 「식품공전」 제1.2.29(가공식품의 정의에 대한 규정)에서 “가공식품이라 함은 식품원료(농, 임, 축, 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 시키거나,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을 말한다.”는 규정에 의한다.

공예품(工藝品, handicraft)은 공예품이란 ‘실용적이면서 예술적 가치가 있게 만든 물품’이라는 사전적 의미와 「전통공예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또는 명장기능보유자가 만든 공예제품과 국보급 등 문화재 및 민속공예품을 관광 상품화한 물품 또는 지역을 상징하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공예품으로 조달청장이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는 규정을 바탕으로 ‘전통공예품, 민속공예품 등을 포함하여 실용적이면서 예술적 가치가 있게 만든 물품’으로 정의한다.

화장품(化粧品, cosmetic products)은 충주에서만 나타나고 이를 지역특산품으로 분류하기에는 보편성이나 타당성의 문제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제외한다.

- 3) 보은군에서는 대추, 노루궁뎅이버섯, 동충하초, 아가리쿠스버섯, 영지버섯, 산채 등을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품목개발로 임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양상이다.
- 4) 충주시 홈페이지에서는 지나치게 세분하여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유사 품목은 통합해서 분

석했기 때문에 실제 품목은 훨씬 더 다양하다.

- 5) 통계청, 2012, 농작물생산조사: 두류생산량 참고(경상북도 29,075,23794t, 충청북도 19,532,68605t)
- 6) 『大東地志』券一「門目」二十二 四 “山出金銀銅鐵玉石海出漁蟹貝螺蠶塩 八穀隨田野之肥瘠 五果生原陸之土宜 綿麻桑苧松竹栲漆皮革藥品從其所産略錄於各邑 …… 加銀銅藥材之古有今無者刪之”
- 7)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梨’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한국고전번역원에서는 ‘배나무’로 번역하고 있어 품목별 분류에서는 ‘기타임산물류’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배나무는 ‘梨木’이므로 지역별 분석에서는 ‘배’가 생산된 것으로 판단한다.
- 8) 『여지도서』에는 기록은 되어 있으나 ‘今無’라고 하여 당시에 재배되지 않았던 품목을 따로 기록하고 있어 이러한 품목은 표에서 제외하였다.
- 9) 청안현은 『여지도서』의 내용과 대부분 일치하였으나 ‘송이’의 경우 ‘昔有 今無’라는 기록이 추가되어 있다.
- 10) 『세종실록』「지리지」 황간현의 「토의」에서 ‘五穀’이라는 기록이 남아있어 당시 쌀이 재배되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 11) 현재 보은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지역특산물로서 2010년 지리적표시제로 등록된 ‘보은 대추’는 전통성을 잘 살린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 2010 보고서’에서는 보은군은 일조량이 많고 토지가 사질의 황토로 구성되어 있어 비옥하며, 밤과 낮의 온도차가 큰 지역이기 때문에 당도가 매우 높고 육질이 풍부한 대추가 생산되고 있다고 하였다. 즉, 보은군이 위치한 지리적 요인이 보은 대추 성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또한 사통이 발달된 국토의 중심지역이라는 점 역시 대도시로 출하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소, 2010).
- 12) 현재 제천시는 전국 약초의 60%가 유통되는 지역이며, 약초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약초 유통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다.

## 문헌

- 강명욱, 2013, 특산물 가공식품 관광 상품화를 위한 패키지 디자인 연구: 마늘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포럼, 38, 189-198.
- 고재운, 2007, 지역축제 유형별 WTP 및 행태분석 비교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국토지리정보원, 2010. 한국지명유래집 충청편.
- 김무곤·장하용, 2001,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평가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정부부처 홈페이지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7, 38-71.
- 김선아, 2006, 지역축제가 지역농산물 수요에 미치는 영향 분석: 화천 토마토축제를 중심으로,

-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농촌진흥청, 2003, 사과재배,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 2009, 한국 토종약초 500選 전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문화원형백과 한강 생활문화, 2006, 한국콘텐츠진흥원.
- 상명농산물관리연구원, 2007, 농산물품질관리 관련 법령, 상명출판사.
- 서종태, 2006, 여지도서의 물산 조항 연구, 고려사학회, 한국사학보 제25호.
- 선정근, 1996, 지역 특산물 포장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국패키지디자인학회 논문집, 3, 33-51.
- 소순규, 2010, 조선전기 지리지 물산 항목의 편제 방식과 공물 수취의 특성,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희순, 2010, 경기도 가평군 식용특산물의 특성 및 발전 전망, 서울산업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형수, 1999, 강원도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상품화 방안에 대한 연구, 강원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미란, 2013, 광주광역시 농·특산물 브랜드 인지도 및 발전 방향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전통예술평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호탁, 1995, 특산품을 중심으로 한 관광쇼핑상품의 실태분석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경열, 1982, 朝鮮時代 初期 慶尙道 地域의 土産物 分布에 대한 地理的 考察, 춘천교육대학 논문집, 22, 157-175.
- 원경열, 1991, 대동지지에 관한 연구, 민족교육연구, 7, 155-180.
- 유기진, 2012, 지리적 표시제의 실시와 역사지리적 접근,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기봉, 2003, 조선시대 전국지리지의 생산적 항목에 대한 검토, 문화역사지리, 15(3), 1-16.
- 이병동·김홍철·이상식·김용욱, 1993, 農産物 輸入 開放에 대응한 地域特産物開發 研究: 日本의 一村一品運動과 비교해서, 새마을연구 논문집 10, 5-72.
- 이봉호·정규용·박충범·김진경, 2001, 국내 육지면 재배연혁과 주요성과에 대한 고찰,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13(2), 133-137.
- 이소영, 2008, 지역 브랜딩 활용 실태와 실행 전략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승훈, 2006, 전자상거래에 의한 지역특산물 포장 디자인의 브랜드 이미지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 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희, 2013, 고창군 복분자 재배·가공업의 지리적 고찰: 신림면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완, 2010, 울릉도 오징어의 등장과 지역특산물의 명성 확보 과정,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종선, 2012, 지역특산물 브랜드 개발을 위한 사전진단모형 연구: 공동브랜드를 중심으로, 디지털디자인연구, 34, 539-549.
- 전중환, 2012, '소규모 지역'에 있어서 지역 정체성의 재현과 지역지의 서술 체제에 관한 연구, 문화역사지리, 24(1), 13-26.
- 최윤숙, 2010, 농촌지역자원을 활용한 농특산물 부가가치 제고방안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충청향토사협의회, 1997, 충청북도 각군읍지.
- 통계청, 2012, 농작물생산조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소, 2010, 농업전망 2010: 녹색 성장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소.
-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엮음, 2011, 한국역사지리, 푸른길.
- 교신 : 강창숙, 362-763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gaia2004@cbnu.ac.kr)  
Correspondence : Kang, Chang-Sook,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ungdae-ro 1, Seowon-Gu, Cheongju, Chungbuk 362-763.
- (접수: 2015.01.05, 수정: 2015.02.13, 채택: 2015.02.16)